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톨레랑스 바람

나은 곳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춘 곳이 다. '헬조선'이라고도 불리는 한국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피처로 분류되어 사유재산이 오랫동안 겪어 온 문제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마침 곧 개봉하는 '주피터스 문'(Jupiter's Moon, 2017, 코르넬 문드릭츠)도 초능력을 가진 청년을 통해 범지구적 문제이기도 한 난민 문제를 성찰하게 해 준다.

아리안이 아버지와 함께 내전 중인 시리아를 떠나 헝가리 국경을 넘는 숨막히는 장면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막막한 탈출 여정에서 아버지와 헤어져 아리안은 총을 맞는다. 생사를 넘나들다 살아난 아리안은 중력을 벗어나는 초능력을 갖게 된다. 아리안의 초능력을 우연히 발견한 의사인 스티븐은 돈벌이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스티븐은 만취한 상태로 위급 상황에 불려나가 아이를 수술하다가 사망시킨 후 의사 면허 취소란 난국에 처해 있다. 면허 취하 소송을 뇌물로 피해 갈 생각에 빠진 스티븐은 빚돈을 받고 난민 캠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불법 행위도 일삼는다. 아리안도 아버지를 찾고, 신분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한 팀이 된 두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환자들을 찾아 나선다. 아리안의 공중 부양을 천사의 재림으로 보는 환자들은 헌금 하듯이 거금을 받는다.

사지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날아오르는 아리안의 모습은 이 영화의 불거리이기도 하다.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부다페스트 노을 속을 아리안이 날아가는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허망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살길을 찾아 나선 시리아 난민에게 헝가리는 과연 구원의 공간일까, 라는 상념과 함께,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듯 돈독이 오른 이들이 일상에서 벌이는 불법적 행태는 침략과 지배로 점철된 헝가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집단 무의식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강대국이 둘러싸인 헝가리가 몽골-터키-오스트리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며 겪었을 고난,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이기도 했던 아픈 과거는 외세 침략과 지배로 얼룩진 우리 역사에 공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킨다.

홍세화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불가능했던 1979년, 유럽 출장길에서 중앙정보부 기획 '남민전 사건'에 걸려든다. 20년에 걸쳐 프랑스 망명 생활을 보낸 후 써낸 홍세화의 자전 에세이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를 통해 잘 알려진 '톨레랑스'(관용)가 떠오른다.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바람이 한국에 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랜 분쟁 지역인 시리아에 이어, 우리처럼 분단을 겪은 예멘에서 탈출해 온 난민 문제는 우리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용을 보여 줄

기회로 다가온 셈이다.

돌아켜 보면 우리도 난민과 망명으로 세계 시민사회의 관용적 혜택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만주 발판과 상하이 등지를 떠돌았던 독립운동가들은 '암살'(2015, 최동훈)의 바탕이 된 실존 인물들이다. '지슬'(2012, 오벌)에서 보듯이, 해방 직후 미 군정기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 대학살로부터 도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난민들은 오사카에 이쿠노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재일 동포가 되었다.

망명객, 우리도 혜택 입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발생한 (피)난민은 미국과 일본, 그보다 더 떠나면 제3국으로 떠나 해외 동포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0월 유신을 피해 두 차례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이었다. 때론 미디어에서 난민과 망명객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국제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비정치적 존재로 관용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하면, TV영화 '히틀러'에서 "히틀러 당신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총통 각하"라는 대사로 그 차이를 보여 준다. 이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대사,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자들의 나약함과 수수방관이다"가 유독 다가오는 나날이다.

社說

靑 비서실 개편 지방 분권 의지 있는 건가

청와대가 지방 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인 채로 방치한 데 이어 지역 관련 조직의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청와대 조직 가운데 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 두 곳뿐이다. 그마저 균형발전 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 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행정관도 서너 명이나 비어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지방 분권의 양 날개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유관 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

면서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조직의 업무가 확연히 다른데도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조차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할 시점에 두 비서관실을 통폐합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 아닌가. 오히려 두 조직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시켜 보다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노회찬의 죽음 대신 이런 불행한 일 없도록

한 사람의 아까운 인물이 또 갔다.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보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참담한 일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애통하다.

노 의원은 어제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사실은 인정하고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유서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였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노동 운동을 하다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특히 2005년, 삼성 그룹으로부터 맥값을 받아 온 검사 7인을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

일' 폭로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을 정도로 강직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후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었다.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어느 정치인과는 달리 그는 옳은 말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후후한 투사'였다. 변덕이 없는 비유와 촌철살인의 달변가였다. 한 방송사 토론에서 정치 기득권을 깨야 할 방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는 계속 구워 먹어서 새까맣게 된 삼겹살 판을 이제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고 했던 말은 유명하다. 그의 유머가 있는 화법은 답답한 정치에 체증을 느끼던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 이제는 그의 '사이다 발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니 믿기 어렵다.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불행한 일은 그의 죽음에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의와 맞서고 독재와 싸우며 평생을 노동 운동과 진보 정치 운동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청춘특독



정유주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3학년

치유의 숲 장성으로 오세요

양림의 자연 내음이 우리를 살아 숨 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편백향의 매력, 장성의 축령산 편백나무 숲에 가면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합니다. 백백한 아름다움과 나무들이 뿜어내는 편백의 청아한 향을 맡고 있으면 그동안의 때를 씻어 내는 듯한 상쾌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최대의 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에 치료 효과가 있고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하며 알레르기 예방과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에 손색이 없을 만큼 장성은 힐링의 숲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숲은 중앙 임도를 중심으로 하는 숲길, 건강 숲길, 산소 숲길, 숲 내음 숲길,

물소리 숲길, 맨발 숲길 모두 6개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짧게는 0.5km에서 길게는 3km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성숲체원은 축령산에 위치한 편백 치유의 숲과 방장산에 위치한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산림치유 지도사 2명과 숲 해설사 6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문객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드림락, 성인과 노년층을 위해서는 각각 힐링락과 해피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 대상의 케어도, 임산부나 일반 가족을 위한 패밀리락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요가와 기공체조, 아로마요법, 명상 등 다양한 숲체

험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어울림 프로그램은 가족끼리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야외에서 세대가 어울려 전통 놀이를 즐기고 가족이 손을 잡고 산을 한 바퀴 돌며 놀이를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 지치셨나요? 청정한 공기를 뿜어내는 장성 피톤치드 숲에 가면 히 워워 활력을 재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휴식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행복으로 가는 연장선이자 정감다라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새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노을진 하늘 아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행복을 느껴보세요. 자연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행은 선물하고 싶습니다. 장성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하고 가세요.

기고

국립공원 지역 주민은 동행의 대상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

지역 주민이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하기도 한다.

공단에서도 이에 질세라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사회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훼손지 복원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자연에 지역 문화를 더해 명품 마을로 선정하거나 생태 관광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공원 관리 협조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해상국립공원은 네 개다. 개수로는 18%에 불과하지만 면적으로는 41%나 된다. 해상공원의 대부분은 바다와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서 육상 공원에 비해 많은 부분이 열악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공단에서는 직원 배치와 순찰이 어려운 주요 도서 지역에 해상공원 자원보호단을 운영해 주민을 통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 전체가 자발적인 자원보호단이 되어 주면 가장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을 잘 보전하고, 잘 보전된 지역을 통해 내적으로는 자긍심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된다.

이제 국립공원의 지역 주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다. 동행(同行)으로 동행(同幸)이 되길 기대해본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김규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평가사

이러한 설계들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배리어 프리는 쉽게 말하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이다. 고령자, 장애인들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1974년 처음 사용됐으며 2008년부터 국내에서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 시행 10년을 맞이한 올해, 약 2500개의 시설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6개 기관에서 전문적인 심사단을 구성해 인증 평가를 하고 있다.

필자는 배리어 프리시설이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번이라도 몸을 다쳐 이동 장애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불편한 몸으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계단을 이용할 때 어둠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반대로 경사로나 승강기가 이러한 불편함을 얼마나 덜어주는지를 말이다. 다시 말해 배리어 프리 설계는 유도차를 이끄는 신혼부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들, 무릎 아픈 부모님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마주한 여행객 등 모든 구성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증 시설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은 많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손잡이의 설치나 문턱을 없애는 등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無 等 鼓

1708년 6월 스페인 왕 펠리페 5세의 산호세호는 페루·볼리비아 등에서 나온 금·은 등의 보물을 신고 귀국하던 중 콜롬비아 해안에 침몰했다. 이때에 있는 보물의 가치는 최대 100억 달러(11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물론 고문헌 기록에 따른 추정이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미국 인양 회사인 SSA는 투자자를 모은 뒤 1979년 콜롬비아 정부와 산호세호에 대한 탐사 독점권과 인양 물건에 대한 50% 소유권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82년 SSA는 보물선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4년 벨리사리오 베탄쿠르 콜롬비아 대통령은 SSA의 지분이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양측의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산호세호가 스페인 국적의 배라미 스페인까지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됐다. 이 법정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신일 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지난 15일 울릉을 저동리 인근 수심 434m 지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일 그룹은 이 배에는

금화 및 금괴 5000상자 등 약 150조 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 1급 철갑 순양함으로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그룹 말대로라면 돈스코이호에 실려 있는 금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104.4톤)의 약 두 배에 가깝다.

문제는 신일 그룹이 이 배를 담보로 압호 회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일골드코인'이란 압호 회폐를 발급해 보물을 인양한 후 보물 가치의 10%인 15조 원

을 회폐 보유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물의 존재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돈스코이호가 법정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야 건설이 지난 2003년 돈스코이호를 먼저 발견했다며 최초 발견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불분명한 보물선을 두고 진실 게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경영지월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0-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